

ISSN: 2800-051X

HankookResearch

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(제253-1호)

# 여론속의 여輿論論

기획: 우리나라 지방자치 어디까지 왔고,  
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?

2023. 11. 01.

담당자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  
지역혁신연구소장 하동현 교수  
e-mail | eastwiser@gmail.com

정재환 팀장

전화 | 02-3014-0061  
e-mail | chungjh@hrc.co.kr



#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

---

-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.
-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.
-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.  
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,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.
- 정가지표-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.
- 정가지표는 국가, 사회,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.
-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.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,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.
-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.

## 운영책임

이동한 수석연구원

전화 | 02-3014-1060

e-mail | dhlee@hrc.co.kr

## 연구진

정한울 전문위원

전화 | 02-3014-1057

e-mail | hw.jeong@hrc.co.kr

이소연 연구원

전화 | 02-3014-1062

e-mail | lee.sy@hrc.co.kr



# 우리나라 지방자치 어디까지 왔고,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?

## 주요 결과

- 1995년 지방자치가 완전히 부활하면서 8차례의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. 역대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양대 축으로 지방자치를 추진해 왔다.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방정책 사령탑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올 7월에 출범시켰다. 지방시대에는 지역의 자율성과 특성을 기반으로 지역문제를 스스로 직시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. 따라서 지역민들이 지닌 인식과 특성, 지역 자원과 정보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집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
- 이번 조사는 그러한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.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(소장 하동현 교수, 국무조정실 지정 갈등관리 연구기관)와 한국리서치 <여론 속의 여론> 팀은 공동으로 지난 10월 13일~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,0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특집조사를 진행하였다.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지역과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다.
- 먼저 지자체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. 광역지자체 소속감은 전년대비 6% 오른 76%, 기초지자체 소속감은 8% 오른 73%였다. 거주지역에 자부심을 가진다는 응답은 60%였다.
- 행정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광역지자체, 기초지자체 공히 72%로 동일했다. 광역과 기초를 하나의 행정서비스로 인식하는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.
- 응답자 3명중 2명은 거주지역 지자체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여겼고, 실제로 현재 지역을 기반으로 한 모임, 단체 등에 활동하는 주민은 14%에 불과했다.
- 거주지 주민들이 타 지역 출신 주민들과 잘 지내나는 물음에 69%가 동의했다. 하지만 기초지자체에 대한 인식은 달랐다. 53%가 거주 기초지자체와 주변 지자체가 서로 협력적이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.
- 응답자의 43%는 지자체가 역할과 직무를 바르게 수행한다고 인식했다.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는 지금 정도면 적절하다는 의견(47%)이 가장 많았다.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35%를 차지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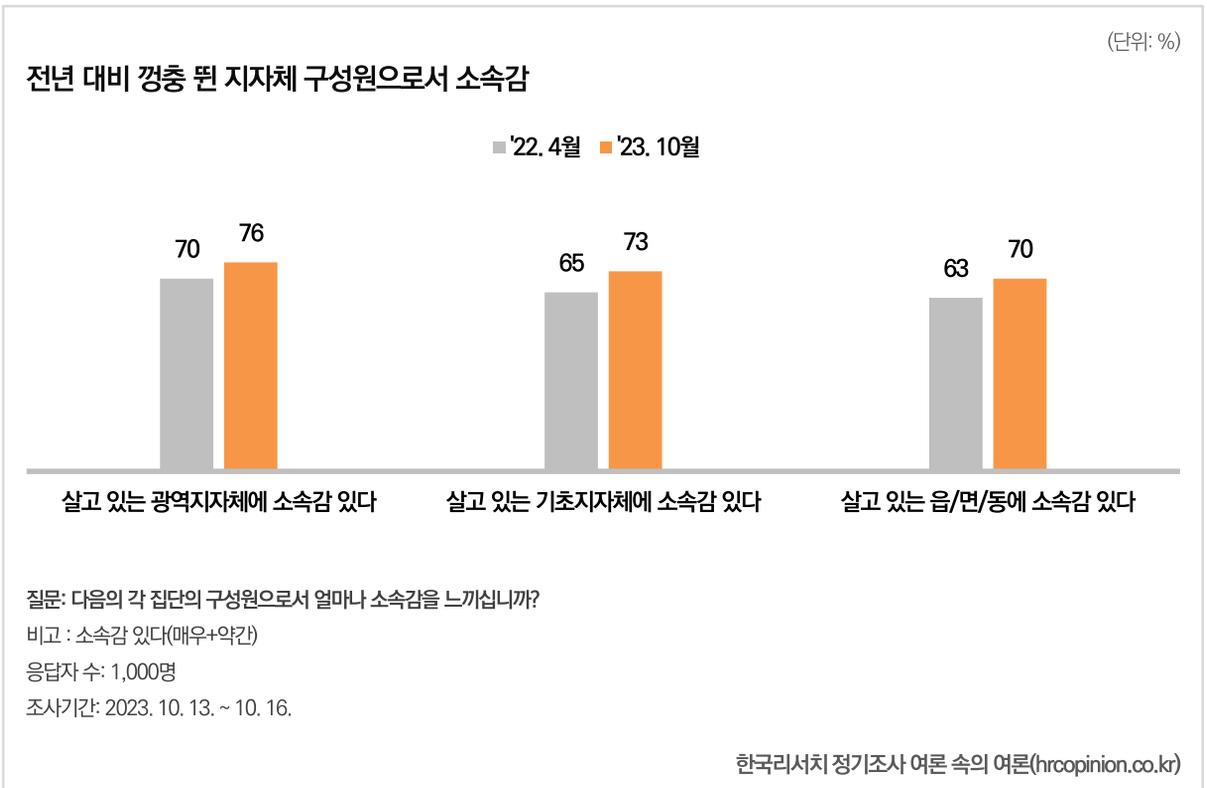


# 1 지자체 소속감과 거주지역 자부심

## 전년 대비 꺾충 댜 지자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

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결과는 지자체 구성원으로서 소속감 상승이다.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광역지자체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은 [지난해 4월 한국리서치 조사](#) 결과 대비 6%포인트 오른 76%, 기초지자체 소속감은 8%포인트 오른 73%로 조사됐다. 읍·면·동 등 동네에 대한 소속감도 63%에서 70%로 높아졌다. 지난해 조사가 전국 민선 8기 지자체 출범 전에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, 매우 의미 있는 변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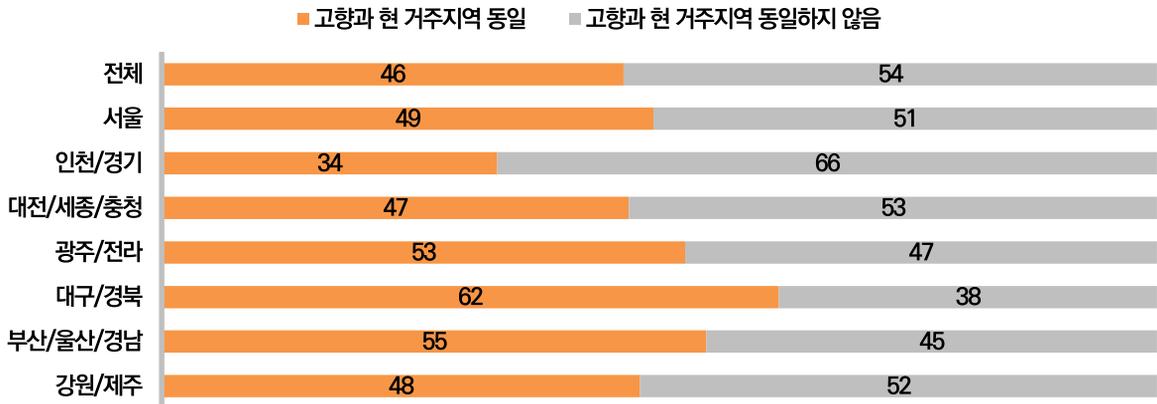
광역 차원에서 권역별 수치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. 그중 부산/울산/경남과 광주/전라에서 소속감이 가장 높았다(79%).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주민들의 소속감이 오히려 더 높았다.



조사 대상자에서 고향과 거주지역이 일치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6%였다. 그중 인천/경기가 타 지역의 주민들의 유입 비율이 가장 높았다. 고향 거주 비율은 대구/경북, 부산/울산/경남 등 영남 지역에서 가장 높았고, 광주/전라도 50% 이상이었다. 그렇다면 주민들은 거주지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? 전체 응답자의 60%가 지역에 자부심을 가진다고 답변했다. 대체로 연령대와 거주년수가 높을수록 자랑스러워했다. 광주/전라, 서울, 부산/울산/경남 권역이 60% 이상으로, 타 지역보다 자부심이 높았다.

(단위: %)

### 타지역 주민 유입 비율, 인천/경기가 가장 높아



질문: 귀하의 고향과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동일합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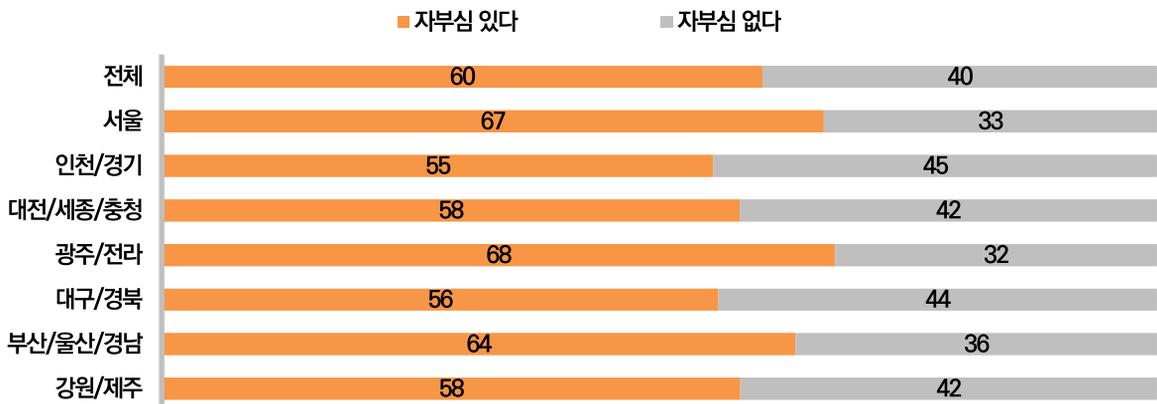
응답자 수: 1,000명

조사기간: 2023. 10. 13. ~ 10. 16.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(단위: %)

### 전체 응답자의 60%, 살고 있는 지역에 자부심 느껴



질문: 귀하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?

응답자 수: 1,000명

조사기간: 2023. 10. 13. ~ 10. 16.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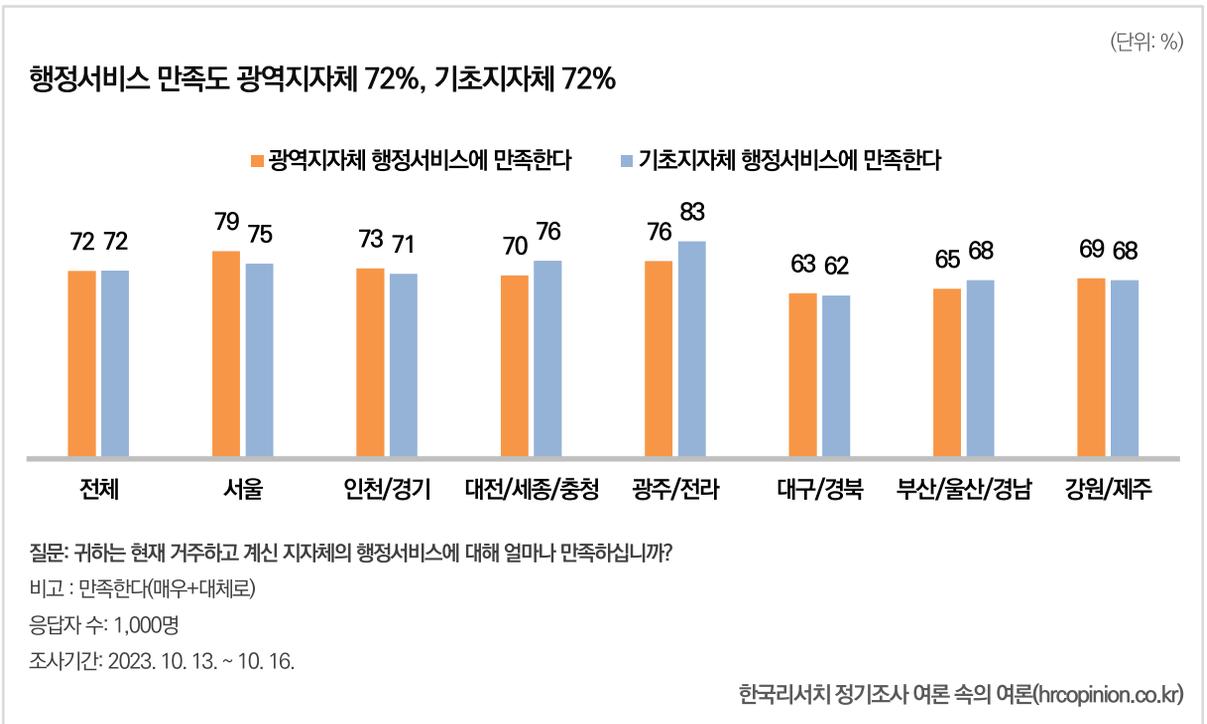
# 2

## 지역별 행정서비스 만족도

### 10명 중 7명(72%),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행정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어

거주 지자체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어떠한가? 광역지자체의 경우 주민 10명 중 7명(72%)이 지역 행정서비스에 만족하였다. 대체로 수도권(서울 79%, 인천/경기 73%)에서 만족도가 더 높았다. 비수도권에서는 광주/전라(76%) 주민들이 가장 만족하는 평가를 보였다(대전/세종/충청 70%, 부산/울산/경남 65%, 대구/경북 63%). 소득이 높고 해당 지역 거주가 오래될수록 만족도가 높은 추세였다.

기초지자체 만족도도 권역별로 유사한 경향이었다. 주민의 72%가 만족한다고 하였고 대체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았다. 광주/전라 주민들은 다른 권역 그리고 광주광역시보다도 높은 만족도(83%)를 보인다는 점이 눈에 띈다. 광역과 기초가 비슷한 이유는 주민들이 광역과 기초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행정서비스로 인식하는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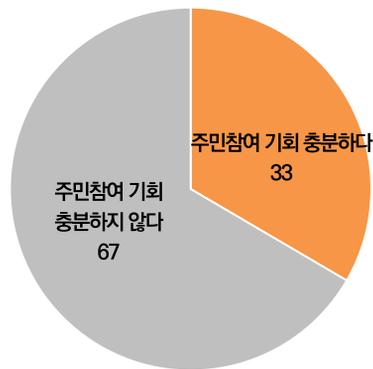
### 3 지자체 주민참여와 지자체간 협력

#### 여전히 주민참여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며, 지역 공동체 활동도 취약해 지자체장·지방의원들이 “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”는 인식까지 영향

응답자 3명중 2명(67%)은 현재 살고 있는 지자체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. 실제로 현재 지역을 기반으로 한 각종 집단, 모임, 단체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주민은 14%에 불과했다. 대다수(85%)가 한번도 활동한 적이 없거나(59%), 과거엔 했지만 현재는 활동하지 않는다(26%)고 답했다.

(단위: %)

국민들은 여전히 주민참여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어



질문: 귀하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 지자체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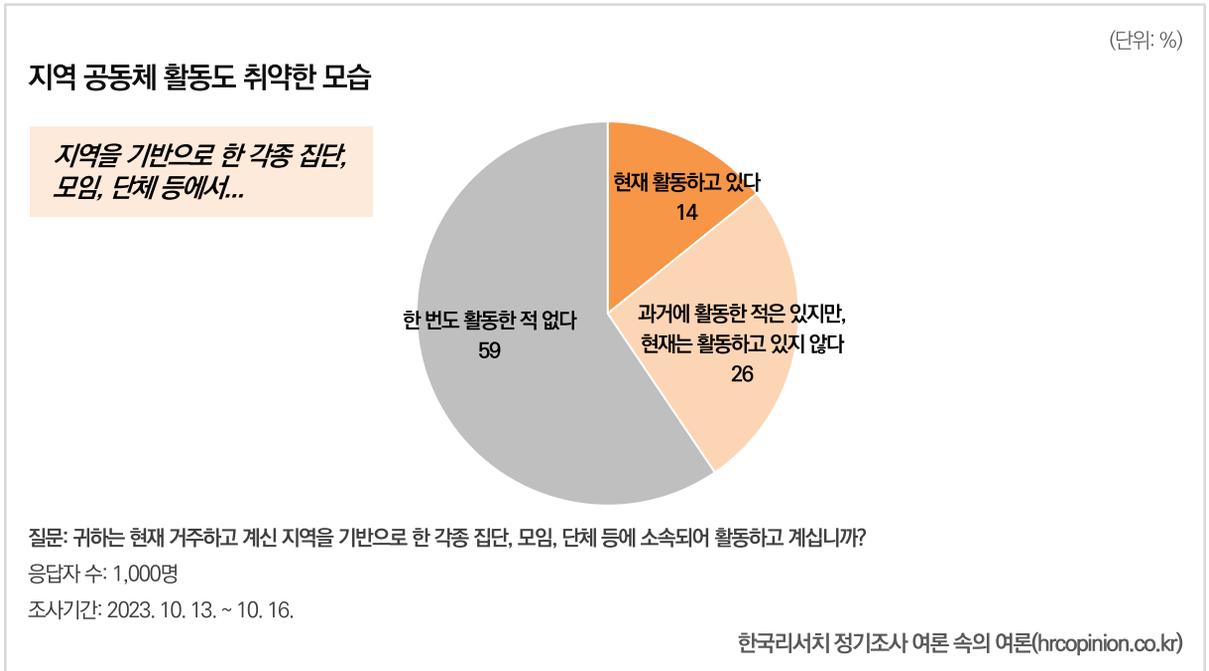
비고: 충분하다(매우+대체로), 충분하지 않다(전혀+별로)

응답자 수: 1,000명

조사기간: 2023. 10. 13. ~ 10. 16.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실제로 현재 지역을 기반으로 한 각종 집단, 모임, 단체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주민은 14%에 불과했다. 대다수(85%)가 한 번도 활동한 적이 없거나(59%), 과거엔 했지만 현재는 활동하지 않는다(26%)고 답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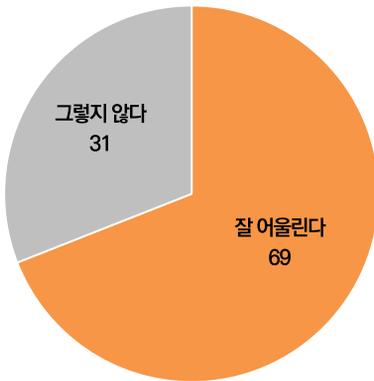
이러한 주민참여-연계의 취약성은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주민대표들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. 단체장, 지방의원 등 주민대표들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56%가 동의하지 않았다.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-협력하느냐는 물음에는 58%가 공감하지 않았다. 지자체에 참여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.

## 타 지역과 연계 협력 ... 주민들은 '타 지역주민과 잘 지낸다', 지자체에 대해선 '주변 지자체와 협력적이지 않다'는 인식이 우세

거주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역 출신 주민들과도 잘 어울리며 지내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69%가 동의했다. 하지만 기초지자체에 대한 인식은 달랐다. 거주 기초지자체와 주변의 지자체가 서로 협력적이라는 질문에 과반인 53%가 동의하지 않았다. 지역주민들의 개방성에는 긍정적 인식이 우세하지만, 지자체 차원의 연계 협력에 대해서는 아직 피부로 체감하는 비중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결과다. 이는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.

### 내가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은 '타 지역주민과 잘 지낸다'는 인식이 우세하지만...

(단위: %)



질문: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주민들이 다른 지역 출신 주민들과도 잘 어울리며 지낸다고 보십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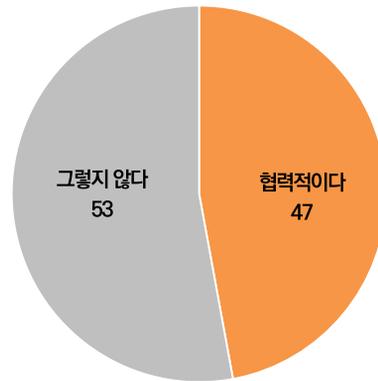
비교: 그렇다(매우+대체로), 그렇지 않다(전혀+별로)

응답자 수: 1,000명

조사기간: 2023. 10. 13. ~ 10. 16.

### 내가 거주하는 지자체에 대해선 '주변 지자체와 협력적이지 않다'는 인식이 우세

(단위: %)



질문: 현재 거주하고 계신 기초지자체와 주변의 기초지자체는 서로 협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?

비교: 그렇다(매우+대체로), 그렇지 않다(전혀+별로)

응답자 수: 1,000명

조사기간: 2023. 10. 13. ~ 10. 16.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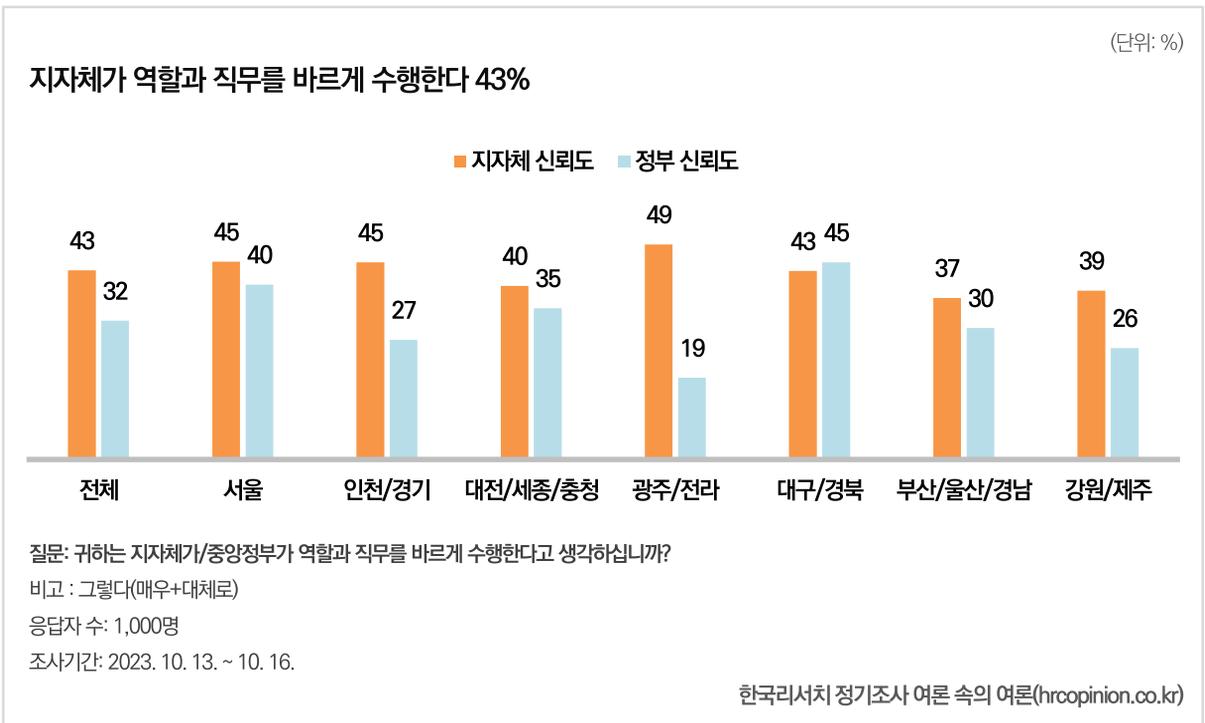
# 4

## 지자체 신뢰도와 분권개혁

### 지자체가 역할과 직무를 바르게 수행한다 43%, 그렇지 않다 57%

최근 새만금 잼버리 파행 등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권한 축소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. 그렇다면 국민들은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앞으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?

응답자의 43%는 지자체가 역할과 직무를 바르게 수행한다고 인식했다. 부정적인 답변이 57%로, 지자체가 주민으로부터 충분한 신뢰감을 받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. 하지만 중앙정부와 비교해 볼 때, 지자체의 신뢰도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 대구/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자체를 조금 더 신뢰하고 있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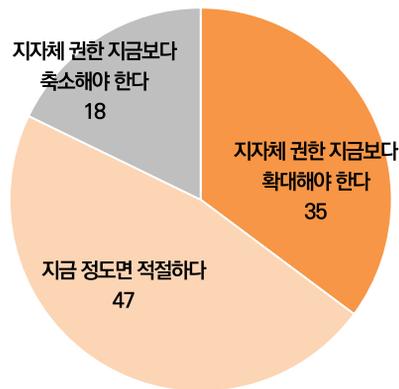


## 앞으로 지자체 권한과 책임 ... 확대인가? 축소인가? 지금 정도면 적절 47%, 확대해야 35%, 축소해야 18%

한편 국민들은 지자체가 지닌 권한과 책임에 대해 지금 정도면 적절하다는 의견(47%)이 가장 많았다.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3명 중 1명꼴인 35%를 차지했다. 지금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18%에 머물렀다. 최근 논란이 된 지자체의 역량을 불신하는 풍조에 대해서는, 적어도 국민들은 지자체의 업무수행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. 그런 차원에서 분권개혁의 필요성을 일정부분 지지하고 있다.

(단위: %)

### 향후 지자체 권한과 책임 ... 지금 정도면 적절 47%, 확대해야 35%, 축소해야 18%



질문: 우리나라의 지자체가 지닌 권한과 책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응답자 수: 1,000명

조사기간: 2023. 10. 13. ~ 10. 16.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지역소속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. 지난해 7월 전국의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들이 출범한 후 주민들의 지역소속감이 한층 강화되었고 행정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. 주민참여, 타 지역과 연계협력 등 과제들도 확인됐다.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다수 국민들은 지방자치를 유지하거나 자치분권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.

다가오는 10월 29일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다. 지금까지 별도로 실시되었던 지방자치의 날과 균형발전의 날이 통합하여 맞이하는 첫 번째 기념일이다.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대전에서는 '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'가 개최된다.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성숙화시키는 숙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.

## 조사개요

구분	내용
모집단	•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
표집틀	•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(23년 10월 기준 약 89만여 명)
표집방법	• 지역별, 성별, 연령별 비례할당추출
표본크기	• 1,000명
표본오차	•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, 95%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$\pm 3.1\%p$
조사방법	• 웹조사(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)
가중치 부여방식	• 지역별, 성별, 연령별 가중치 부여(셀가중) (2023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)
응답율	• 조사요청 14,000명, 조사참여 1,339명, 조사완료 1,000명 (요청대비 7.1%, 참여대비 74.7%)
조사일시	• 2023년 10월 13일 ~ 10월 16일
조사기관	• (주)한국리서치(대표이사 노익상)

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

여론속의

# 여輿論論

Hankook Research

